

【 해외금융뉴스: 북미 】

미국 재무부 및 연방은행, AIG 2차 구제금융 결정

- 1차 850억, 2차 600억 달러: 총 1,500여억 달러 -

□ 미국 재무부와 연방은행은 지난 9월 AIG에 85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한 이후 3/4분기 실적 공표일인 11월 10일에 600억 달러의 2차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 AIG는 11월 현재 구제금융 850억 달러 중 이미 810억 달러가 소진된 상황에서 3/4분기 영업실적이 2007년 30억8,500만 달러 순이익에서 2008년 244억6,800만 달러 순손실로 급격히 악화됨.
- 그러나 보험사업부문의 수입보험료는 다른 사업부문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7%의 성장을 시현했다고 발표함.

□ 1차 구제금융지원은 파산방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2차 지원은 자금구조의 견고성, 재무적 유연성 제고에 있다고 함.

- AIG는 지난 1차 구제금융 지원이 AIG의 파산을 방지하여 국가경제 및 나아가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화에 일조하는 역할을 해온 것에 의미를 둔다면,
- 이번 2차 구제금융은 견고한 자본구조 구축을 가능하게 하여 재무적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추후 AIG의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CDS 및 부실담보대출 유동화증권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도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AIG가 혜택을 받은 1~2차 구제금융 지원은 반드시 원금과 함께 이자가 납세자에게 상환될 것이라고 함.

- 향후 전문화된 글로벌 보험회사로의 입지를 굳혀 납세자와 주주에게 의미 있는 가치를 되돌려 줄 것이라고 밝히는 등 납세자의 양해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임.

□ 유동성 문제는 지속적인 자금조달 방법과 일회성 방법 등 두 가지 조치를 통해 해결될 것으로 보임.

- 지속적인 방법으로는 재무부가 AIG 우선주 투자를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1차 구제금융 제공시 결정된 신용제공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AIG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임.
 - 미국 재무부는 총 400억 달러 규모의 영구우선주 투자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수익으로 누적 배당금과 10%의 이자를 지급받는 한편 발행주식의 2%를 취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제공받기로 함.
 - 1차 신용제공 조건을 완화하여 AIG의 자금조달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함.
 - 先 영구우선주 발매, 後 600억 달러 추가 구제금융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대출금리는 기존의 LIBOR+8.5%에서 LIBOR+3.0%로 낮추기로 결정
 - 구제금융으로 인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수료 이자는 기존의 8.5%에서 0.75%로 낮추기로 결정
 - 구제금융에 대한 상환 만기를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
 - 자산매각 이익은 대출상환에 사용되도록 규정
 - 뉴욕연방은행은 영구우선주와 신주인수권을 포함하여 전체 AIG주식의 79.9%만을 소유하도록 결정
- 일회성 방법으로는 AIG와 뉴욕연방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구성된 사업부를 설치하여 부실주택담보대출 부동화증권을 인수하는 한편, AIG의 CDS를 다시 매입함으로써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임.
 - 부실주택담보대출 관련 부동화증권 인수는 AIG가 10억 달러를 자본으로 투입하고 뉴욕연방은행이 225억 달러를 부채로 제공하는 전담 사업부에게 맡겨질 예정이며, 이와 같은 조치로 AIG의 부실담보대출과 관련된 노출 손실규모는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
 - 9월의 1차 구제금융 지원 시 동일 목적의 달성을 위해 AIG와 뉴욕연방은행의 자본조달로 마련된 375억 달러 규모의 'U.S. securities lending program'은 11월 5일자 현재 199억 달러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새로운 사업부의 발족으로 AIG와 뉴욕연방은행에 각각 반환되고 해체될 예정
 - CDS를 다시 거둬들이기 위해 AIG가 50억 달러, 뉴욕연방은행이 300억 달러를 자본으로 투입하는 새로운 전담 사업부가 설치되고, 이를 통해 약 700억 달러의 손실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전체 AIG 관련 부실 규모의 95%에 해당될 것으로 보임.

- 또한 CDS로부터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연방은행은 이익의 2/3를 취하고 AIG는 나머지를 갖기로 결정함.

(AIG 2차 구제금융 관련 보도자료 11/10
AIG 2008년 3/4분기 실적 관련 보도자료 11/10
Financial Times 11/9, 11/10)